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4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가계대출 조이니… 車 가격 3배까지 빌려주는 '자담대' 급증

조선비즈 https://zrr.kr/dqj0zI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 등 2금융권이 자동차 담보 대출(자담대)을 잇달아 출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 대출이 막히고 카드론 한도까지 줄자 틈새를 노린 것

'생산적 금융' 시대… 외면받는 '소호대출'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RsGznL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총 325조6982억원으로, 전월 대비 780억원 증가에 그치며 지난 6월 4668억원이 감소한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
개인사업자의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겹치자 은행들이 신규취급에 더욱 신중해졌고, 고위험 업종에 대한 심사 강화까지 맞물리며 증가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

시중銀 VS 인뱅, 앱 경쟁 점입가경…전략은 '생활 밀착형'

이데일리 https://zrr.kr/cq8Q5M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유치 경쟁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심화
카카오뱅크는 PLCC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생활 서비스를 선보이고, 국민은행은 모바일 신분증인 국민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에서 두각을 나타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또 미뤄지나

이데일리 https://zrr.kr/fyRp7d

은행권이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자본을 미리 쌓아두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확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은행들에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기 부담스러워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

한국투자증권 'IMA' 이달초 출시 일정 연기

머니투데이 https://zrr.kr/0s6gsU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IMA 상품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상품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파악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처음 IMA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상품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

IPO에 치우친 자본시장, 'BDC'로 투자 다양성 더할까

머니S https://zrr.kr/uHXHt5

금융위원회가 BDC 도입과 관련해 12월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이번 시행령과 IPO에 치우친 자본시장이 BDC로 확대돼 투자 다양성이 확보되고 유망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생태계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될지 주목

12월 막판 손보사 GA시책, '연속가동·브릿지' 확산… 내년초 가동 모멘텀 노린다

보험저널 https://zrr.kr/2RaaIQ

12월 연말에도 손보사 GA 시책 경쟁이 전반적으로 잠잠한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연속가동(브릿지) 조건'에 현금성 시상을 2배로 얹는 방식으로 막판 가동 끌어 올리기에 나서
금리 환경, 손해율 부담, 당국의 시책 모니터링 기조가 겹치며 연속가동, 생산성, 주력상품 우대처럼 목표를 세분화해 필요한 구간에만 인센티브를 얹는 방식이 확산

보험사 저출산 지원 방안 논의…사회 안전망 기능 커진다

보험매일 https://zrr.kr/ilFtur

보험업계가 정부의 저출산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
보험료 할인은 연 9조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현재 TF에서는 내년 4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

7000건→19건…코인 급락에도, 강제청산 증발

이데일리 https://zrr.kr/UPYAJ6

빗썸의 가상자산 담보대출(렌딩) 서비스에서 강제청산이 한 달 만에 사실상 '증발'… 지난 10월 7000건이 넘었던 청산이 11월 들어 20일간 19건에 그치는 모습
급락장 진정에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고위험 레버리지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고 빗썸 내부의 레버리지 제한 조치가 작동하면서 청산될 포지션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결과라는 분석

"금가분리 원칙 재검토해야"…국회·업계, '금융-가상자산' 통합 주장

뉴스1 https://zrr.kr/SAUN2Z

국회와 업계가 금융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분리한 '금가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